

문재인 “장애등급제 · 부양의무제 폐지”

5대 장애인 복지정책 발표... 맞춤형 복지 제공 ·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등 공약... 재원 확보 방안은 없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에 나선다. 이를 위해 장애 예산도 대폭 증액키로 했다.

문 후보는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5대 장애인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현행 1~6급으로 분류해 복지 서비스를 차별 지원하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나의 몸이 얼마나 불편한지 스스로 입증해야하는 행정 편의적 방식 끝내겠다”며 “등급에 따른 획일적인 지원이 아니라 개인의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한다. 장애인 학대와 갈취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장애인 법률 상담 및 인권보호 제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복지 사각지대 발생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한다. 현재 소득인정액이 수급 기준을 충족해도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문 후보는 “재원대책 고려해 단계적으로 해가되, 빠른 기간내에 완전한 폐지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궁극적으로 폐지 원칙 하에 폐지는 세부적인 로드맵을 구성해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재원은 장애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육군 35사단 창설 62주년 기념행사

전북을 지켜온 육군 35사단이 창설 62돌을 맞았다. 사진은 기동대 장병이 특공무술 시범으로 격파를 선보이는 모습.

마련한다. 현재 한국의 장애인 복지 지출 규모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0.61%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2.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만 문 후보는 “장애 예산을 과감히 확충하겠다”는 말 외에 구체적인 목표치나 재원 확보 방안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

사회 만들기를 위해 임대주택 확충과 자립지원금 지원, 탈시설지원센터 운영 등 생활시설을 공급한다. 부양의무자 규정도 탈시설 장애인에 우선 폐지키로 했다.

또 장애인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 ▲광역별 어린이재활병원 및 장애이재활센터 확충 ▲장애인보조

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등을 약속했다.

끝으로 문 후보는 “장애복지를 국가 의무로 시민 권리로 인식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장애 정책의 최종 목표는 완전한 통합과 참여다.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이 사라지는 나라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전북 14개 장애인 단체,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전북지역 14개 장애인 단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20일 전북지체장애인협회와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등 도내 14개 장애인 단체는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냉혹한 현실과 차별의 무게를 덜어 줄 후보가 문재인 후보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공개 지지했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문 후보가 밝혔다”며 “우리 장애인 단체는 문 후보의 노력과 인식, 헌신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내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가 우리사회에서 장애인 복지의 근본적 개혁을 이뤄냄으로써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요구가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고, 모든 인권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도민공모 우수공약 시상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0일 도당 사무실에서 ‘도민공모 우수공약 시상식’을 가졌다.

박재만 원내대표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상식은 김춘진 도당위원장과 조현 이재명 손가락 혁명군 전국 상임 대표, 박우정 고창군수 등이 참석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도민들이 필요한 그런 정책을 실현시키는게 도민행복의 지름길”이라며 “지속적으로 도민 공모접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파트관리비절감 정책으로 우수 공약상을 수상한 이정남씨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공모를 해서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70%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분들에게 조금씩 만이라도 혜택이 돌아 가면 좋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북도당 비전위원회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민공모 우수공약을 실시했다.

모집기간은 지난 2월 7일부터 3월 7일까지 한달 동안 진행했고 민간부문 35건, 기관 22건 등 총 57건이 접수됐다. /인재용 기자

도선관위,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투표참여 캠페인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20일 전북대학교 구정문 일원에서 투표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선관위 직원 및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참여·희망·공정·화합의 아름다운 선거가치가 전파·확산되고 범도민적인 투표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홍보용품과 리플릿 등을 배부하고 캐릭터 인형과 함께하는 프리허그 기념사진도 촬영했다.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박영신 회장은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그동안 나타났던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시민 화합과 통합을 이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전주시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선거에 대한 많은 관심과 투표에 참여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5월 4일과 5일 이틀간 실시하는 사전투표제도를 알지 못해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투표 홍보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5월 9일 대통령선거일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농업 · 탄소 육성, 새만금 가시적 성과 이끌 것”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전북발전 공약 제시... 금융타운 · 탄소밸리 조성 등 계획안 내놓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20일 전주를 방문해 전북 발전 공약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유승민 후보는 중앙선대위부위원장 겸 전북도당 선대위원장인 정운천 의원과 함께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첫 일정으로 동암재활원을 방문해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장애인 공약 및 전북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유 후보는 전북나후에 대한 소외감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격정이 많은 전북도민들의 마음을 언급하면서, 전

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필요한 만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할 의지와 대안을 가진 자신만이 전북 발전을 위한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북의 장점인 미래농업과 탄소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새만금을 활용한 지역경제 성장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답보 상태에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 내겠

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가식품 클러스터 2차 단지 조성, 금융융합타운 이전에 발맞춘 금융타운 조성, K-글로벌 탄소밸리 조성 등을 통해, 전북을 식품·금융·탄소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가겠다는 구체적 계획안을 제시했다.

이율러 “호남지역 유일의 보수정당 의원이자 농식품부 장관 등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호남보수의 아이콘인 정운천 의원과 함께, 전북 도민의 바람이자 전북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

이 될 ‘4대 기동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전북의 새로운 미래가 꿈이 아닌 현실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운천 의원은 “이번 대선을 준비하면서 유승민 후보와 오직 전북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충실하게 준비했다”며, “전북이 호남의 중심으로 우뚝 선 만큼, 우리 187만 도민들께 전라도 천년역사의 자긍심을 심어드릴 수 있도록 저와 유승민 후보가 드린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약 발표를 마친 유승민 후보는 정운천 의원과 함께 풍남문 광장을 찾아 유세를 진행했으며 남부시장을 방문해 상인연합회와 간담회 및 오찬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광주를 방문해 호남유세를 이어 갔다.

/인재용 기자

국립전주대학교
UNU
UNU
UNU

국립전주대학교
UNU
UNU
UNU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